



2024년 10월 27일(제1217호) 연중 제30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본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주님을 체험한 우리의 선택”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앞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낫게 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은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부터 별것 아니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들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기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과를 뛰고, 운동을 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하는 일련의 모든 일상은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것들이기에 당연하게 여길 뿐, 무엇 하나 없으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기적인 것이죠. 나는 이 일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신 주님께 나는 어떻게 응

답하고 있나요? 바르티매오처럼 주님을 따라나설 것인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르고 말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기적, 선물들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당연한 일처럼 시큰둥하고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아니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은 전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누군가는 군대라는 곳을 원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온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좋을 수도,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나의 모습 역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해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선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주님을 따라나서겠다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준(리우렌시오) 신부  
백미(육군 제9보병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예레 31,7-9

회 목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시

히브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마르 10,46ㄴ-52

영 성 제 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여덟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안곡에서, 1859년 10월 12일

지극히 경애하올 리브와 신부님께

1858년 5월 28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8월 29일에 마친 신부님의 서한은 변문으로 보낸 연락원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신부님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경애하올 신부님께서도 다른 신부님들처럼 저를 남겨 두고 먼저 가지지나 않을까 크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이 좋지 못하신 존경하올 우리 베르뇌 장(張) 주교님에 대해서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우리 생활이 조금만 더 자유롭게 되어도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의 건강을 한결 더 잘 돌보아드릴 수 있을 터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항상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으므로 그저 가슴을 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선교사 신부님들은 여름 더위에 매우 지쳐 계시지만 다른 신부님들은 그럭저럭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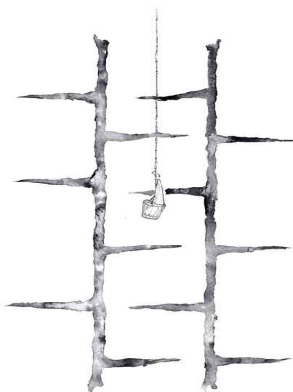
저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저 혼자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합니다. 하루에 고작 40리밖에 못 걷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공소 순방 때에는 항상 말을 타고 갑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들은 다 제가 순방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다니는 거리는 7천 리가 넘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이 넓어서 무려 다섯 도(道)에 걸쳐 있고, 또 공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 장마나 무더위나 농사일 때문에 순방을 할 수 없는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도 제가 쉴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폐롱 신부님의 관할 구역으로 가서 안곡이라는 교우촌에서 여름 휴가를 지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비록, 이렇지만.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사랑을 받습니다.

비록 이 모양이지만  
한 번 더.

비록, 이렇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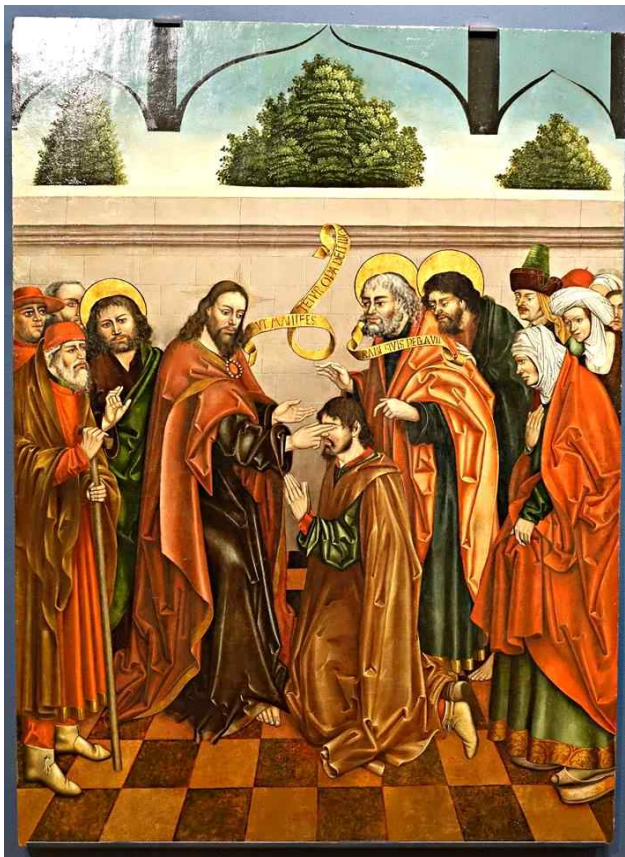
그렇게



▶ 베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상화이야기

## 바르티매오 치유



페르난도 가예고 공방(Workshop of Fernando Gallego)  
1480년 ~ 1488년경 제작  
패널 위 유화, 154.9x110.5cm  
이리조니 대학교 미술관, 미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마르 10,52)

김은혜(엘리사벳)

오늘 복음 말씀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르티매오는 나지랏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지손 예수님, 지에게 지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리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지코 있으리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지손이시여, 지에게 지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마르 10,47-48)

오늘 작품은 본 복음 내용을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 예수님은 무릎 꿇은 바르티매오의 눈에 손을 얹어 치유하고 계시며, 이를 많은 이가 둘러싸고 목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큰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는 바르티매오를 꾸짖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결국 그를 치유해 주셨다. 이를 보고 못마땅해하는 이들과 놀라워하는 이들 등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우리는 큰소리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세부도

###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상요셉 정세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민고등학교 방문 및 미사
- 때: 10월 27일(주일) 11:00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환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